

이 작품은 라단조, **Sehr gehalten**(아주 신중하게), 4/4박자의 부드러운 서주로 서주로 시작되는데, 여기에는 주요 주제, 동기의 대부분이 암시, 예고되어 있다. 첫 부분의 처음 주제는 주요 주제(고뇌와 갈망 동기, 청춘의 사랑 동기)를 암시하고 있으며, 제1바이올린으로 더욱 명확하게 나타난다. 또한 그것을 이어받는 동기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여기에 새로운 소재가 더해진 뒤에 새로운 주제도 연주된다. 주요부는 **Sehr bewegt**(아주 격동적으로), 2/2박자의 자유로운 소나타 형식으로 매우 드라마틱한 구상과 유기적인 구성을 하고 있다. 여기에는 지금까지의 주제나 소재 외에도 오보에에 의한 선율과 제2주제를 떠올리게 하는 부차적인 주제가 더해지는데, 중간부에서는 약보3이 중심이 되고 제2주제는 축소된 재현부에서 **D**장조로 재현된다. 마지막에는 주요 주제를 회상하면서 조용히 마친다.